

국토관리사업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

박 학 수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가는 오늘의 총진군은 국토관리사업에서도 혁명적전환을 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토관리사업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며 인민들에게 훌륭한 생활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입니다.》

국토관리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만년터전을 다지는 숭고한 사업이다.

국토관리사업이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으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원대한 국토건설사상과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이는 사업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외세의 발굽밑에 신음하던 우리 조국을 찾아주시였을뿐아니라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국토관리사업을 조국의 룡성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전략적문제로 내세우시고 정력적으로 이끄시여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속에 헤매이던 우리 조국을 짧은 기간에 인민의 락원으로, 사회주의금수강산으로 세상에 빛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이 주인된 새 세상에서 나라의 모든 자원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게 해야 한다고 하시며 주체적인 국토건설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을 발표하시여 사회주의제도수립이후의 토지문제, 국토건설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해답을 주심으로써 국토건설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풍부화시키시고 그 본보기를 마련해주시였다.

이 땅에 뿌리내린 나무와 꽃에도, 명승지의 등산길과 공원, 유원지마다에도, 조국땅 그 어디에나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그길에서 묘향산의 경치는 억만금의 금은보화와도 바꿀수 없다시며 인민의 재부로 고이 지켜주신 인민사랑의 전설이 태여났고 버림받던 북변의 외진섬이 조국의 지도우에 비단섬의 새 역사를 새기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의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사회주의수호전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과 인민을 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두번다시 구원해주시였을뿐아니라 전당, 전국, 전민을 국토건설사업에로 불러일으키시여 조국강산을 사회주의선경으로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대규모의 토지정리사업과 대계도간석지, 금성간석지 등 간석지개간공사가 성과적으로 추진되어 나라의 해안선이 훨씬 줄어들고 많은 새땅이 얻어져 나라의 알곡생산에 이바지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대규모의 자연흐름식관개

체계인 개천-태성호물길과 백마-철산물길, 미루벌물길을 비롯하여 대규모 및 중소규모의 자연흐름식물길들이 건설됨으로써 전기를 쓰지 않으면서 농경지에 관개용수를 충분히 보장하고 백마호를 비롯한 대인공호수와 저수지들이 생겨나 내 조국의 아름다움을 더해 주고있다.

토지정리와 간석지개간으로 사회주의대지가 넓어지고 대규모의 자연흐름식물길공사들이 성과적으로 완공됨으로써 조국산천은 더욱 아름답고 수려하게 전변되었으며 선군시대에 조국의 지도가 달라졌다.

선군시대와 더불어 펼쳐진 천지개벽의 이 놀라운 전변은 전적으로 애국, 애족, 애민의 숭고한 리념을 지니시고 조국의 무궁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해 한생을 깡그리 불태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원대한 국토건설구상을 현실로 꽃피워 내 나라, 내 조국을 빛내이는것은 수령님의 후손,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모두의 더없이 숭고한 혁명적 의무이다.

수령에 대한 충정에 최대의 애국이 있다. 우리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원대한 국토건설구상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 이 땅에 사회주의락원을 반드시 일떠세워야 한다.

국토관리사업이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자강력에 기초하여 자립적민족경제발전의 만년토대를 축성해나가는 숭고한 사업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총적목표로 내세우고있는 오늘의 총진군은 민족경제의 자립적발전을 확고히 담보하는 국토관리사업을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으로 중시하고 더욱 개선해나갈것을 요구한다.

강국은 누구나가 바라는 념원이다.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강국을 지향하고 민족의 부흥을 바란다. 그러나 그것은 바라거나 구걸한다고 하여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자강력에 기초하여서만 이루어질수 있다.

더우기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고 다른 나라와 민족을 노예화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로골화되고있는 현시기 외세의존을 버리고 자력자강의 길로 나가 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활적인 문제로 나선다.

자강의 길만이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존엄을 살리고 혁명과 건설의 활로를 열어 나가는 길이다.

자주독립국가의 기본징표의 하나이며 나라와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한 담보인 경제적 자립은 자체의 힘과 기술뿐아니라 자체의 자원에 튼튼히 의거할 때에만 확고히 담보된다.

국토관리사업은 바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담보하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의 축성과 관련되어있다. 그것은 나라의 물질적기초, 경제적기초를 튼튼히 하는 과정이 곧 국토와 자원을 관할하고 그 령토에 위력하고 생활력있는 경제토대를 갖추어나가는 과정으로 일관되기때문이다.

모든 민족은 자기의 령토에 튼튼한 경제토대를 축성하고 그 조건과 환경에서 민족적 번영을 이룩해나간다. 자기 존재와 발전의 지역적, 경제적조건을 떠난 민족이란 있을수 없으며 민족마다 자기의 령토를 풍요하게 하고 경제력을 강화하면서 사회발전의 높은 단

계제로 이행한다. 생산력이 발전하고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경제기술적협조가 활발히 진행되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매개 나라가 자기의 령토에 튼튼한 경제토대를 축성하는데 종속되게 된다. 더우기 혁명과 건설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되는것만큼 국토관리사업을 떠나 튼튼한 민족경제발전을 담보할수 없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려면 그 물질적기초인 토지와 자원, 생활환경에 대한 보호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토지와 자원, 생활환경은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위한 필수적수단이며 해당 나라 인민들의 사회경제생활과 민족적번영의 영원한 원천으로, 항구적인 바탕으로 된다.

토지와 각종 자원은 자연의 변동과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가지 경제활동에 의하여 변하게 되며 그에 대한 보호관리사업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욱 중요하게 제기된다. 이것은 국토관리사업이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축성에서 필수적이고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사회적생산이 발전함에 따라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에서 자원개발과 리용에 대한 요구는 더욱더 높아지며 이러한 요구는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국토관리사업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현대공업의 중요한 원료, 연료자원인 지하자원은 지질변화의 장구한 력사적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것으로 하여 그의 개발과 리용은 국토의 면모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때문에 지하자원의 개발구역과 탄광, 광산들의 배치구역, 캐낸 자원의 처리시설 등을 확정하고 국가적으로 관할통제하는 국토관리사업은 공업발전과 자원과의 가장 적극적인 적응을 보장하여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쌓을수 있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으로 된다.

환경보호사업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환경을 보장해주기 위한 숭고한 사업으로서 사회주의국가가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이다. 더우기 공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경제의 규모가 비할바없이 커지고있으며 날을 따라 인구가 늘어나고있는 오늘의 조건에서 환경을 잘 보호관리하는것은 인류의 생존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오늘 국토와 자원, 환경에 대한 통일적이며 합리적인 보호관리가 실현되지 못하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자연의 파괴적인 리용과 자연환경의 오염으로 하여 생산력이 쇠퇴하고 농업과 수산업발전에 치명적인 후과를 미치고있으며 그것은 사람들의 생사존망에 관한 문제로까지 심각히 제기되고있다.

이 모든것은 국토관리사업이 자강력의 물질적기초인 토지와 자원, 생활환경을 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보여준다.

국토관리사업이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으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조국의 미래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굳은 신념으로부터 출발하는 숭고한 사업이기때문이다.

애국중에서도 가장 큰 애국은 우리 세대뿐아니라 후손만대의 무궁한 번영을 담보하는 애국이다.

근로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우리 사회에서 조국에 대한 열렬한 애국심은 국토와 자원을 아끼고 사랑하며 자신만이 아니라 사회와 집단, 민족의 융성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혁명투쟁에서 나타나야 한다.

자연을 개조변혁하는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인 국토관리사업은 한두해가 아니라 오랜 기간을 거쳐 진행되는 장기적인 사업이다. 이것은 국토관리사업이 바로 눈앞의 리익이 아니라 후대들의 행복과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먼 앞날을 내다보며 만년대계로 해나가는 국토관리사업은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함께 우리의 사회주의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과 신심에 넘쳐 투쟁하는 사람만이 할수 있다.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이것은 자신은 비록 락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국의 앞날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한생을 묵묵히 바친 진정한 애국자들만이 부를수 있는 신념의 구호이며 미래를 락관하는 혁명가들만이 지닐수 있는 숭고한 인생관이다.

그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반만년 민족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대규모의 토지정리사업과 수백리자연흐름식물길공사를 완공하고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사회주의선경을 펼쳐놓을수 있는것은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조국의 미래를 굳게 확신하였기때문이였다.

승리에 대한 신심이 부족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위대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인 오늘 우리 혁명대오에 서있을 자리가 없다.

지금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10년을 1년으로 비약하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강산이 변하는 벅찬 혁명의 시대, 만리마의 시대에 살고있다.

이 땅에 태를 묻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열렬한 애국심,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한다.

우리모두는 필승의 신심드높이 숭고한 애국사업인 국토관리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를 빛내여나가는 오늘의 투쟁에서 삶의 뚜렷한 자욱을 남겨야 할것이다.